진도 '신비의 바닷길' 인파

27일 기적같이 열린 2.8㎞에 이르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수만명의 관광객이 건너고 있다.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 사이의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로 수심이 낮아져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산 주택가 누더기 이면도로

신창동·수완동 일대 오수관·전선·가스관 공사로 자주 파헤쳐

아스콘 떨어져 나가고 노면 요철 심해 부실 복구 지적

광주시 광산구 주택가 이면도로가 잦은 도로 굴착으로 노면이 '누더기'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28일 광산구 신창동 주민들에 따르면 원룸 등이 밀집된 신창초등학교 옆 주택가 도로의 경우 잦은 굴착공사에 따른 땜질식 보수로 도로 노면이 높낮이마저 맞지 않는 등 곳곳이 엉망이다.

이같은 도로는 원룸 등 신축건물이 밀집된 신창동과 신가동,수완동 일대에 집중 돼 어림잡아 수km 가량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 도로 중앙선 부위 지하에 묻혀 있는 오수관과 도로를 따라 매설된 전기선로 및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다 보니 발생된 불가피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로를 연결한 후에는 별도로 '도로굴착 복구확인'을 받도록 돼 있어 광산구가 졸속 복구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도로의 경우 공통적으로 중앙선쪽으로 도로 곳곳의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는 등 노면이 울퉁불퉁한 요철 상태로 운전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진 도로는 향후 아스콘을 덧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복구할 수 밖에 없어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강모(51·광산구 신창동)씨는"당초 허가받은 굴착의 길이와 면적을 초과한 상태에서 부실 복구됐는데도 버젓히 준공이 됐다"며 당국의 부실관리를 비판했다.

이에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주택가의 도로 굴착은 5m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며 "10m가 넘는 규모의 도로굴착은 허가 과정에 심의를 받도록돼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택지기반 시설의 조성 과정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젊은 시절 과음, 50대 이후 간질환

남성이 여성환자의 6배

젊은 시절 과음으로 간에 부담이 쌓이면 주로 50대부터 간경변·간염 등 알코올성 간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의 2011년 알코올성 간질환(질병코드 K70) 진료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14만7000명, 인구 10만명당 299명꼴이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환자가 10만명당 513명으로, 여성(81명)의 6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남녀 모두 가장 많았다. 우선 남성의 경우 50대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비중이 전체의 32.6%였고 이어 40대(24.5%), 60대(18.2%) 순이었다. 여성 환자 역시 50대에 28.4%가 집중됐다.

알코올성 간질환을 지방간·간염·간경화 등으로 세분하면 남성 환자의 30.4%가 알코올성 지방간이었고, 알코올성 간염과 간경화가 각각 25.1%, 15.0%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줄어드는 대신 보다 심각한 만성질환인 알코올성 간경화 등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종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50대 중년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이전 음주의 영향이 50대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알코올성 지방간·간염·간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주와 절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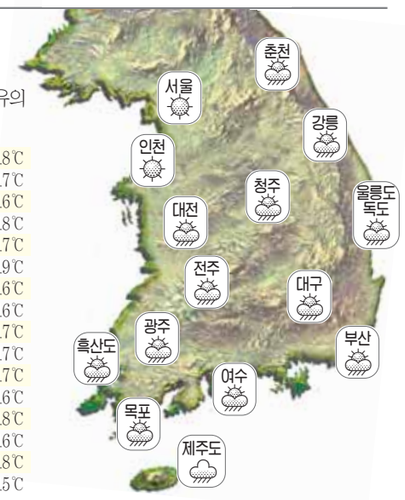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4분 해짐 19시 16분 | 달뜸 23시 06분 달짐 08시 30분

전국 비

바람 강하니 시설물 관리 유의하세요.

광 주	흐리고 가끔 비	14/18℃
목 포	흐리고 가끔 비	14/17℃
여 수	흐리고 가끔 비	14/16℃
나 주	흐리고 가끔 비	14/18℃
완 도	흐리고 가끔 비	12/17℃
구 례	흐리고 가끔 비	12/19℃
강 진	흐리고 가끔 비	13/16℃
해 남	흐리고 가끔 비	13/16℃
장 흥	흐리고 가끔 비	12/17℃
순 천	흐리고 가끔 비	11/17℃
영 광	흐리고 가끔 비	16/17℃
진 도	흐리고 가끔 비	12/16℃
전 주	흐리고 가끔 비	14/18℃
군 산	흐리고 가끔 비	14/16℃
남 원	흐리고 가끔 비	12/18℃
흑산도	흐리고 가끔 비	13/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감기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04:42 16:45	09:47 21:52
여수	11:23 --:--	05:20 17: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화)	5/1(수)	2(목)	3(금)	4(토)	5(일)
날 씨						
최저/최고	8/20	6/18	7/18	6/19	7/20	10/23

오늘 돌풍 동반 비

전남지역 시설물 관리 주의

29일 광주·전남지역에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부터 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다"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28일 예보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농어촌교육 특별법 추진

한국교총 간담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농어촌 교육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장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특법 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